오늘의 게시판

제 2회 국제패트롤잼버리 개영식 오후 8시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대집회장

행사

〈9일〉

▲제 2회 국제패트롤잼버리 개영식=오후 8시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대집회장. 세계 50개국에서 남여 스카우트 대원들 1만여명 참석. 동천·낙안읍성·선암사·고인돌공원 등 12개 장소에서 50여 종류의 체험활동. 동천함께걷기 및 한여름밤의 콘서트 등 시민참여행사와 부대행사. 영화배우 안성기도 참여 대원들을 위한 봉사 활동에 참여. 14일까지.

▲제 29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전야제=오후 7시30분 진도군 구 진도경찰서 부지. 퓨전 국악·모듬북 및 사물놀이 공연 등.

▲개매기 체험 행사=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도군 진도읍 청용마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부대행사로 열림.

▲조선인력양성과정 제 1기 수료식 및 제 2기 입교식=오후 2시 한국폴리텍V 목포대학. 1기 수료생 100명과 2기 입교생 150명이 참석. 3개월 수료 과정 마친 뒤 조선업계에 전원 취업.

▲제 10회 무안 백련 대축제 현장 홍보활동=오전 11시 한국도로공사 무안영업소. 군청 직원들이 톨게이트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홍보 전단 및 관광 지도 1만부 배부.

▲광주향교 충·효·예 체험캠프=오전 9시 광주시 남구 충·효·예 체험관. 청소년 70명 대상으로 실시.

〈10일〉

▲제 29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개막식=오후 2시 진도군 고군면 회동공연장. 진도북놀이·국악대공연·씻김굿·바닷길 한마당(농악)·7080콘서트 등.12일까지

▲효사랑 브랜드 사용 협약식=오후 2시 광주 남구청 상황실.

공연

▲한여름밤 찾아가는 예술공연=9일(수)~10일(목) 오후 8시 순천 상사댐 광장. 시립예술단 등 초청 공연.

전시

▲최운형 개인전=9일까지 창갤러리. 미 예일대학원에서 현대미술 공부하고 있는 최운형씨의 첫 개인전.

▲한국조폐공사와 함께하는 우리 돈 이야기=9일까지 광주시립민속 박물관. 국내외 화폐 740점 전시.

▲파랑새는 있다=16일까지 롯데화랑. 동신대 조진호 교수의 사진전으로 분교 학생들의 꿈을 담은 작품 16점 전시.

▲중국작가 탕마오홍의 'Sunday'전=2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인 탕마홍씨가 제작한 대형 애니메이션 작품 전시.

▲국제판화워크숍=9일까지 우제길미술관.

▲무진서각 전통각자전=10일까지 북구청 갤러리.

▲의향 호남을 말한다 '미술로 만나는 약무호남전'=9일까지 나인갤러리

▲제 7회 무등산 사랑전=11일부터 31일까지 자미갤러리. 한국화·서양화·문인화 등 51점.

역사속의 오늘

▲손기정,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경기에서 우승(1936)

▲미국, 일본 나가사키에 원폭투하(1945)

▲독일 출신 스위스 소설가 헤르만 헤세 세상 떠남(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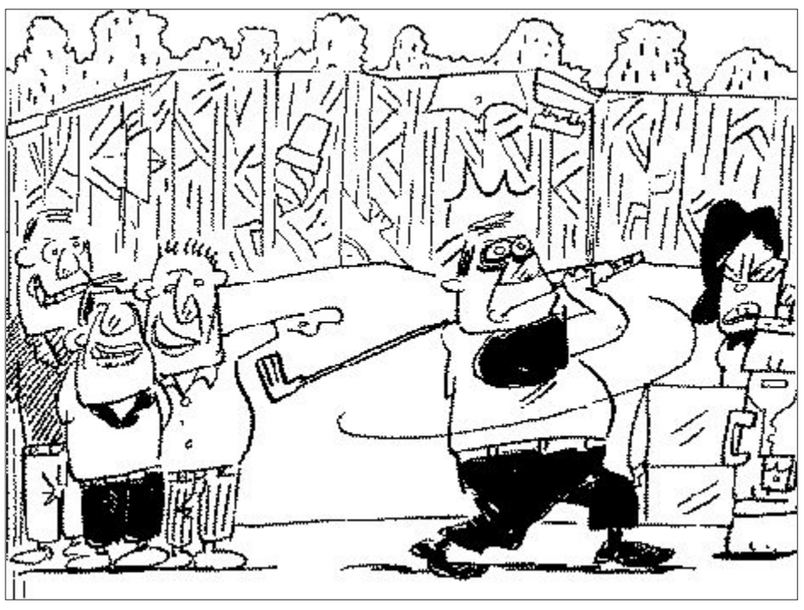
▲닉슨 대통령 사임, 포드부통령 미국 38대 대통령에 취임(1974)

숨은그림찾기

< 33 >

▲ 지난주 정답

화살, 종이비행기, 프라이팬, 셔틀콕, A자, 열대어, 못, 대접



찾아보세요 열쇠, 화살, 바늘, 아이스크림, 고추, 열대어, 종이배, 왕관, 다리미

◀직업은 못 속여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자 조폭 두목들이 단체로 쇼핑을 하러 왔다. 그들은 골프 매장으로 들어갔다. 겁이 난 종업원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기 뭐…찾으…시는 거...있으세요?"

조폭 두목들은 종업원을 무시한 채 구경에 열중했다. 그중 제일 큰형님이 골프채 하나를 집어들어 사뿐히 스윙을 하고는 한마디 했다.

"아그들아 어떠냐? 폼나냐?"

동생들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따! 성님은 뭐를 잡아도 다 연장 같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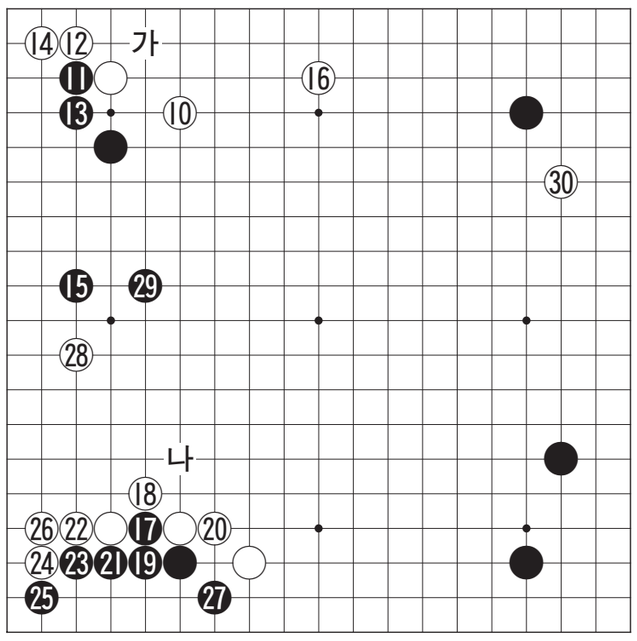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김현주·목포시 용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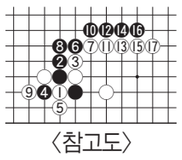
김희경·화순군 동면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김 5단의 애용수법 제2보(10~30)

白 김영수 5단 〈빛고을교사회〉 黑 박광주 5단 〈포스코〉



〈참고도〉

백 10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정석이다. 그런데 다음의 14가 김영수 5단이 애용하는 수법으로 변칙수다. 이 수로는 '가'에 두는 것이 정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김 5단은 14가 흑의 모양에 칼끝을 겨누고 있다. 다음의 16이 좋은 자리여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흑 17은 백이 19로 제압하는 것과 비교하여 엄청나게 큰 곳이다. 백 18로 막으면 27까지는 오래된 정석인데 최근에는 18로 '참고도'의 백 1로 아래에서 몰고 17까지가 새로운 정석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우변과 좌변에 흑의 굳힘이 있어 흑이 좋아 보인다.

백 28로 부분적으로는 '나'에 지키는 것이 정수다. 그러나 지금은 28이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을 놓쳐서는 안된다.

김 5단이 발빠르게 30으로 걸쳐가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바둑소식

이창호 9단, 日 이마무라 제압

이창호 9단이 8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린 제18회 TV바둑아시아 선수권대회 1회전에서 일본의 이마무라 토시야 9단에게 219수 만에 흑 6집 반승을 거두고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이 9단은 일본의 하네 나오키 9단-중국의 뤄시허 9단간 대국승자와 10일 격돌한다. 반면 유창혁 9단은 중국의 왕시 5단에게 286수 만에 백 14집 반패해 1회전 탈락했다.

이 대회는 한·중·일 방송사가 주최하는 초속기 프로기전 우승·준우승자 등 7명이 출전, 토너먼트로 승부를 가린다. 제한시간은 없으며 초읽기 30초, 고려시간 1분 10개가 주어진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뉴스퀴즈

24. '아시아 홈런킹'으로 불리며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에서 대활약하고 있는 한국 선수가 최근 한·일 개인통산 400홈런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선수는 지난 1일 도쿄돔에서 열린 한신 타이거스와의 홈경기에서 1회 투런 홈런에 이어 9회말 끝내기 2점포(시즌 33호·통산 401호)를 뿜어냈습니다.

이 선수의 400호 홈런은 일본의 오 사다하루(왕정치)와 미국의 알렉스 로드리게스(뉴욕 양키스)에 이어 3번째로 빠른 기록입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이승엽 ②장종훈 ③김봉연 ④양준혁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9일(음 7월 16일 庚午)

子 36년생 보고 또 보고 주변을 살펴보라. 48년생 직업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60년생 건강과 재물은 같은 편이다. 72년생 사무실과 가정, 남편과 자녀까지 모두를 살펴보라. 84년생 무리한 변화가 예상되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행운의 숫자 : 12, 35

丑 37년생 처와 재물에 시달림이 있을 수 있다. 49년생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화해하며 지내라. 61년생 직장과 남편에게 변화가 온다. 73년생 모든 일이 순조로우나 안심은 이르다. 85년생 소신껏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 22, 28

寅 38년생 좋은 계획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 50년생 협조자는 있으나 주의해서 결정하라. 62년생 길보다 흉이 더 많으니 모든 일에 주의하라. 74년생 돈은 들어오나 쓴 구멍 막기가 바쁘다. 행운의 숫자 : 21, 44

卯 39년생 욕심을 버리고 만사에 주의하면 길사가 있다. 51년생 역마기가 발동하니 장거리 여행은 길하다. 63년생 구설 시비 등 사소한 일이 괴롭힐 수도 있으니 주변을 살펴보라. 75년생 횡재수가 보이니 복권을 구해보라 행운의 숫자 : 18, 19

辰 40년생 뜻은 높으나 기회가 안 보인다. 52년생 인생의 지혜를 후배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라. 64년생 안정을 취한 연후에 생각하고 행하라. 76년생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아내의 사랑이 행한 만큼 있다. 행운의 숫자 : 14, 43

巳 41년생 예측 불허의 실물수가 보이지만 주의하면 비켜간다. 53년생 신사가 생기니 앞뒤를 살피라. 65년생 요추에 신체적 불편이 나올 수 있으니 무리는 삼가라. 77년생 오늘 할 일은 오늘에 끝내라 내일이면 불리하다. 행운의 숫자 : 24, 31

午 42년생 시작은 했으나 쉽지는 않다. 54년생 시비 도난 분실이 발생하나 큰 손실은 없다. 66년생 지혜는 제사를 순조롭게 만드니 웃어른에게 지혜를 빌려라. 78년생 腎虛腰痛 무리하게 힘쓰면 허리가 아프다. 행운의 숫자 : 17, 42

未 43년생 주변을 칭찬하면 자신도 올라간다. 55년생 부부간에 예의를 지키면 사랑도 지켜진다. 67년생 제일 편하고 소중한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다. 79년생 좋은 이성의 만남이 예상되니 준비하고 있으라. 행운의 숫자 : 01, 41

申 44년생 눈물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가족을 살펴보라. 56년생 다른 사람의 불편을 살피면 내 불편도 사라진다. 68년생 배우자 덕은 본인 스스로 만든다. 80년생 새로운 인생을 설계 할 이성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2, 43

酉 45년생 지출은 발생하나 오히려 수입이 더 크다. 57년생 이웃의 도움으로 새 생활이 시작 된다. 69년생 작은 일도 꼼꼼하게 성공이 약속된다. 81년생 새 인생의 동반자가 가까이에 있으니 멀리서 찾지 마라. 행운의 숫자 : 23, 39

戌 46년생 기쁨은 크고 아쉬움은 작다. 58년생 뜻밖의 횡재는 있으나 결과가 크지 않다. 70년생 손윗사람과 돈거래는 신용만 잃는다. 82년생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은 버리면 큰 돈이 들어온다. 행운의 숫자 : 03, 27

亥 47년생 먼저 베풀어라 그 보답은 클 것이다. 59년생 작은 것을 버리면 큰 것을 얻는다. 71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지만 결국은 자신이 해야 한다. 83년생 부모에게는 효도를 자식에게는 가정교육을 시키라. 행운의 숫자 : 12, 30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707>

How come~?

~하다니 웬일입니까?

A:**How come** you're fully dressed up?
B:I'm on my way to a party.
A:You look gorgeous.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B:Thank you for the compliment.

A:웬일로 쫙 빼입었어?
B:나, 파티 장에 가는 길이야.
A:너 멋있다. 못 알아볼 뻔 했는데....
B:칭찬해줘서 고마워

be dressed up : 옷을 잘 차려 입고 있다.
How come~? : (구어) 왜인가[그런가]
- How come you didn't join us?
왜 우리 측에 들지 않았나?
〈참고〉 How comes it (that~)? : 왜 그렇게 (~하게) 되었나?
compliment : 칭찬.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707>

あまり割り勘はしないんでしょう?

별로 더치페이는 안 하지?

A:韓國じゃ、**あまり割り勘はしないんでしょう?**
B:そうだね。割(わ)り勘(かん)をすると、けちだとか心(こころ)の狹い人だと思(おも)われるからじゃない?
A:もし數人(すうにん)の人と一緒に食事(しょくじ)したら,ふつう誰が勘定(かんじょう)をうの?
B:役職(やくしょく)が高(たか)い人とか,年(とし)のおおい人かな。

A:한국에서는, 별로 더치페이는 안 하지?
B:그래. 더치페이를 하면 쩨쩨하다든가 마음이 좁은 사람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지 않을까?
A:만약 몇 명의 사람과 같이 식사하면 보통 누가 계산을 하는 거야?
B:직무가 높은 사람이던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겠지...

けち : 구두쇠
心(こころ)の狹(せま)い人 : 마음이좁은사람, 쩨쩨한사람
思(おも)われる : 생각되어지다
勘定(かんじょう) : 계산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425>

机場班车几点到这儿?

공항버스는 몇 시에 여기 도착하나요?

A:机場班车几点到这儿?
[illegible]
B:下午3点。馬上就到。
[illegible]
A:从这儿到机场需要几个小时?
[illegible]
B:大概一个半小时。
[illegible]
A:공항버스는 몇 시에 여기 도착하나요?
B:오후3시요. 곧 옵니다.
A:[illegible]
B:[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한자 이야기 <325>

要領不得 (요령부득)

허리 요, 목 령, 아니 불, 얻을 득

요령부득(要領不得)의 '요(要)'는 허리를 가리키고, 옷에서는 허리띠를 말한다. '령(領)'은 몸에서는 머리를 가리키고, 옷에서는 옷깃을 말한다. 허리와 머리는 매우 중요한 부위(部位)이다. 여기서 뜻이 발전되어 '요령'이라고 하면 사물의 핵심, 요점을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요령부득'이라고 하면 주요 사항이나 중요한 핵심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뜻이 된다.

'요령'이라는 말은 본래 사마천의 "사기"에서 나온다. 뒷날 실크로드의 발견자라고 역사에 이름을 남긴 장건(張騫)이 전한 무제 때 흉노족에게 쫓겨 달아난 월지족(月氏族)을 찾아 동맹을 맺기 위하여 서역(西域)으로 파견되었다. 장건은 10여년을 걸려 월지족을 찾아냈으나, 월지의 왕은 무제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기사(記事)의 끝에 "끝내 사명(使命)으로 삼은 월지의 요령(要領)을 얻지 못했다. 몇 년 더 머물다가 돌아왔다."라는 평(評)을 사마천이 하였던 것이다.

사마천의 이 표현에서 요령이란 말이 생겨났다.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면 '요령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자기 한 몸만을 잘 지키자고 교묘하게 처신하면 '요령을 피운다'라고 부정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